

新성장동력 위한 인력양성 시급

전북인자위 도내 1,005개 업체대상 조사... 인력 및 훈련 수요 등 분석 실시

도내 탄소산업에 대한 산업기반 및 제조업 신규 수출관로 모색을 위해 수출 및 마케팅 교육과정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이룰 인재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전북도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5인~499인 이하 도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업 분류별 인력현황 및 채용방향, 훈련 수요 및 필요분야 등에 대해 조사가 실시됐다.

또한 전북지역 산업 및 고용상황을 고려해 고용위기산업에 대한 인력양성 방향을 제시하고, 전북도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 및 훈련수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 수요 등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양성 훈련 수요는 총 887명이며, 이 중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수요는 568명으로

전체 6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신성장동력산업은 스마트농생명, 탄소융복합, 자동차기계산업, 그 린에너지 및 정보통신기술 융합이다.

양성훈련은 취업 희망자 또는 전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 등을 교육하는 직업능력개발 과정이며, 업체들은 이 양성훈련을 통해 887명의 인력을 공급받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양성 및 향상수요와 도내 훈련 공급 현황, 마이스터고 및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대학 졸업생 등 인력공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차년도 우선교육훈련업종을 선정하고 중장기 인력양성 방향을 제시했다.

그 결과 양성 훈련은 정보통신, 전기전자, 재료관련직 순, 향상훈련은 기계, 전기전자, 재료관련직 순으로 훈련 필요 상위직종이 선정됐다.

전북의 고용위기와 관련해 유사 업종 전직지원교육의 필요성 및 해외 신규 판로 개척, 탄소산업에 대한 기반 마련과 장기적 측면의 인력양성체

계 마련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체 정량조사 결과와 함께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풀을 활용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적 이슈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해 조사한 점이 특이하다.

매년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도내 인력 및 훈련수요와 공급현황을 분석해 차년도 및 중장기 훈련과정 공급에 대한 지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2017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인성 사업을 수행할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고 차년도 전북지역 인력양성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선홍 공동위원장은 "전북의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많은 기업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편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신입행원 연수 입교식

29명 대상 JB MAN 양성교육

전북은행은 지난 31일 본점 연수원에서 하반기 신입행원 29명에 대한 연수 입교식을 갖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강한 JB MAN 양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병진 부행장은 "경기불황으로 더욱 좁아진 취업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합격해 연수에 참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강한 전북, 강한 전북

은행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신입행원들은 지난주 2박 3일간의 행군을 포함한 7주간 CEO 특강, 직무연수, 인성교육, 영업점 실습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연수 커리큘럼을 이수할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북 인재의 꾸준한 채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글로벌 항공인재 육성위해 중국·국내 대학과 협력

연변대·우석대와 산학 협약

이스타항공이 글로벌 항공 인재 육성을 위해 중국 및 한국 대학과 함께 산학 협약을 체결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1일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연변대학교에서 이스타항공·연변대학·우석대학교와 함께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 산학협동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한 인재양성 내용의 3자간 교류의향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 서창훈 우석대 이사장, 박영호 연변대 총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스타항공과 연변대, 우석대는 교육과정의 합작 운영, 학생교류, 산업체 실무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실습, 취업정보제공 및 진로지도 연계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은 "이번 3



자 협약을 통해 한중 항공산업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누적 탑승객 2000만명 달성을

앞둔 이스타항공은 최근 유틸라이얼 라이언스에 가입해 인터넷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노선 편익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올 상반기 4대의 신규항공기 도입을 통해 시아판, 하노이 등 지속적으로 국제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원주심봉 웰빙시티 기공식 개최

IH전북분부는 4일 원주심봉 웰빙시티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웰빙시티는 웰빙(Welbeing)에 힐링

(Healing)을 더한 새로운 도시라는 개념으로 옛부터 강과 산들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원주 삼봉사구의 새로운 네이밍(BI)이다. IH 관계자는 "웰빙시티 개발 완료

시 6,000여 세대의 주택건설과 공공기관이 입주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접 산업단지 종사자 및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의류 인터넷쇼핑몰 불만 폭주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전주 삼천동의 이모씨(30대,여)는 지난 3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2벌을 주문하고 무통장 입금으로 18만1,500원을 결제했다.

이후 이모씨는 의류 1벌은 수령했으나 나머지 1벌은 주문한지 1개월이 경과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환불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품질 불량 등의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물체의 경우 9월까지 890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약철회 거부 및 환불지연 피해가 48.6%(46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2.7%, 품질 불량 22.6%, 부당행위 3.5%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3영업일 이

내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하지만 합인상품 또는 다투류, 환색 의류 등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 환불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을 지연하거나 시은품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과 품질 하자 상품에 대해 차용 또는 세탁을 이유로 교환, 환불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계약해제 시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전환해 지급하거나 반품 시 배송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 계약 해제, 이행, 환불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12건(58.4%)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사업자들은 환불 불가 사전 고지, 품질하자 불인정 등의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의류 피해와 관련하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주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당한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개선을 요청했고,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수시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통공동체 조직 친목기능 강화

100년 넘게 전승되고 있는 농촌의 전통공동체 조직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그 성격이 조금씩 변화하며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에 100년 이상 현존하고 있는 대동계(大同契), 두레, 향약(鄕約) 등 전통공동체 조직 30곳에 대한 전승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한 전통공동체로는 혈연 중심의 문중계(門中契), 지연 중심의 대동계(大同契), 기능 중심의 두레,향약위친계(爲親契), 송계(松契), 산신계(山神契) 등이며, 지연 중심의 대동계가 과반을 차지했다.

조사결과 전통공동체는 과거 '마을운영' 역할(66.7%)이 강했지만, 현재는 크게 약화(26.7%)됐다.

반면 제례를 주관하고 놀이와 친목도모의 역할이 강화됐다.

또한 과거에 비해 인력이나 재원 등 '지원확보'를 할 수 있는 성격은 사라지고 '문화전승', '재선판단' 활동은 새롭게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존하는 전통공동체 조직은 모두 공동재산을 갖고 있었으며, '부동산과 현금' 모두를 보유한 조직이 73.3%로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물질 기반으로 마을제사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고, 조직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 전통공동체 조직은 동성(同性)마을이 활발히 만들어졌던 '조선 후기(30%)'에 가장 많이 형성됐고, '일제강점기(20%)', '독립 이후(16.7%)', '조선전기(3.3%)'에도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공동체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마을의 58.3%는 '산간지'였으며, 회원 수는 '30명~60명 미만(39.3%)'이 가장 많았다.

특히 회원의 고령화율(65세 이상)도 60% 이상인 조직이 82.2%로 전통공동체 조직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 지속될 수 있을지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인재용 기자

캠코 전북, 전주시 '부동산 공매투자 아카데미' 성료

캠코 전북분부는 1일 전주 상공회의소 5층 대강당에서 '2016 부동산 공매투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도내 온비드 이용고객, 입주재산 공매입찰 희망자 등 도민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캠코는 이번 행사에서 온비드 이용방법과 관내 주요 관심물건 소개 및 실전 부동산 공매투자, 부동산 공매 권리분석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인진희 캠코 전북본부장은 "공매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온비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